

‘오월 미술 기행’ 통해 그날의 정신 기린다

5·18 40주년 맞아 곳곳서 전시회

‘광장: Beyond The Movement’

‘오월, 별이 된 들꽃’ 문화전당서 열려

오월미술관, 광주정신 체험

‘누군가는 거기 없었다’ 전시

은암미술관 ‘민중화, 민주화’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5’ 전

‘5월 광주 항쟁’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예술 장르로 구현돼 왔다. 무엇보다 시각예술 장르는 강렬한 이미지를 앞세워 다채로운 작품들을 쏟아내왔다. 40년 세월 동안 오월미술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5·18 4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 등을 준비했지만 코로나 19여파로 무대 예술 등의 경우 대부분 시민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회들이 더욱 귀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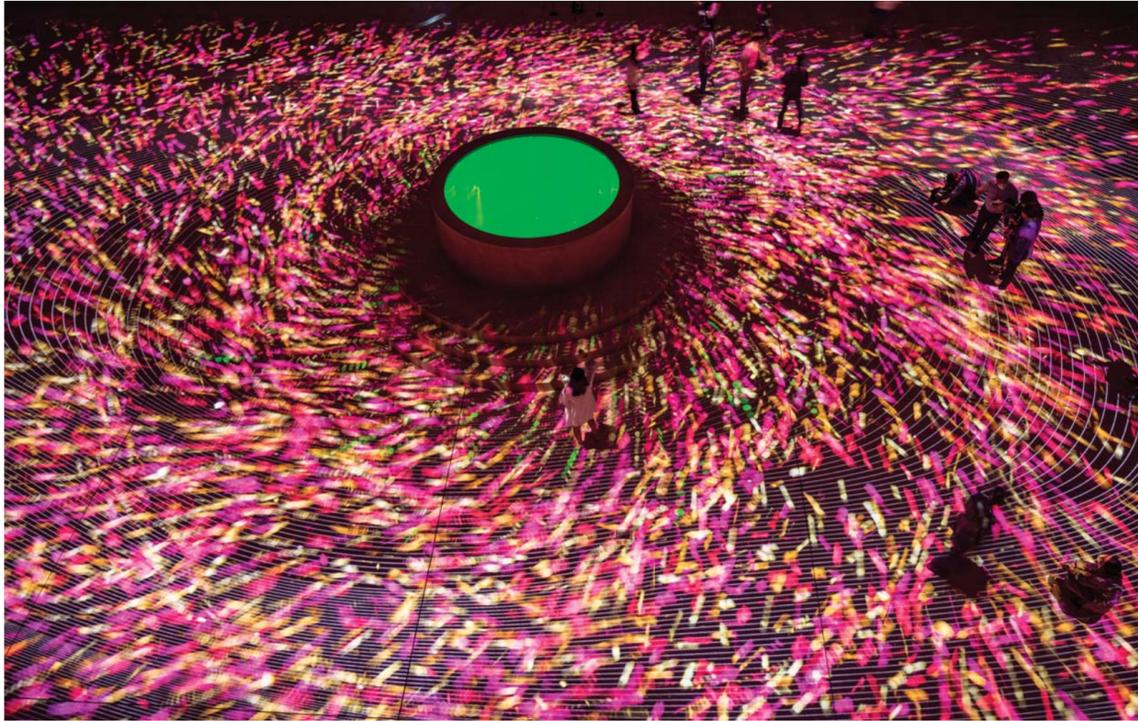
광주 오월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에서 시작하는 ‘오월 미술 기행’을 통해 1980년과 2020년을 잇고, 미래로 나아가 보자.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는 공간은 모두 도보로 이동하면서 만날 수 있다.

출발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1관에서 열리는 ‘인터랙션 미디어아트 ‘광장: Beyond The Movement’ 전(7월12일까지)이다.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가 걸린 입구를 지나 전시장으로 안으로 들어서면 현재를 뛰어넘어 1980년으로 이동하는 기분이 든다. 5·18 민주광장을 모티브로 당시와 현재의 기억을 재해석해 과거의 상처와 갈등의 치유하고 화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유재현 작가의 ‘월출’과 정해운 작가의 ‘Circle of Cure’가 어우러진 10여분 분량의 작품을 통해 40년의 세월을 건너 뛴다. 암전 후, 둥근 라이트가 하나둘 켜지고 하강과 상승을 거듭하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분수대 모형 위로 쏟아지는 빛의 조각들과 거대한 규모의 전시장 바닥으로 쏟아져내리는 화려한 꽃잎 문양의 영상과 웅장한 음악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장면은 감동을 전한다. 빈백에 편안하게 앉아 감상해도 좋고, 광장을 거닐 듯 전시장을 걸으며 나에 반응하는 빛과 꽃잎을 만나도 좋다.

전당이 기획한 전시는 두 가지가 더 있다. 5·18 시민군 출신으로 유엔 등에서 전시회를 가진 김근태 작가의 ‘오월, 별이 된 들꽃’ 전(6월21일까지)은 오월 항쟁에 참여한 광주시민을 표현한 토우 1000인, 한지로 만든 1000인 등 2000개의 군상을 전시하고 있다. 또 류블라나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과 협업한 ‘연대의 흙새’ 전(10월25일까지)도 만날 수 있다.

3부로 구성된 ‘직시, 역사와 대면하다’전은 ‘오월 예술’을 대표해온 광주민중미술협회의 ‘오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인터랙션 미디어아트 ‘광장: Beyond The Movement’ 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오월미술제’로 확대해 3부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지금까지 오월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작가들의 5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며 무엇보다 젊은 작가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전당 창조원 북쪽 6관에서 만나는 ‘직시’ 3부는 ‘지금 여기, 경계 너머 전(24일까지)’에는 강운·김화순·박화연·송필용·임남진·위재환·조은소·조정태·오월안부프로젝트(김자아·김지현) 등이 참여해 오월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의 출발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들을 출품했다.

문화전당어린이문화원 맞은편에는 바로 며칠 전 문을 연 ‘오월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누군가는 거기 없었다’ 전(6월16일까지)은 광주 항쟁과 광주 정신을 잇는 작업은 현재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시다. 이사범·송필용·박태규·하성흡·이기원·김광래·최요안·정영창·김상집·박기태·최진우 등 12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됐으며 오월미술운동 자료들도 만날 수 있다.

예술의 거리에서는 다채로운 전시가 이어진다. 미로센터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직시’의 2부격인 ‘현재 속에 살아 있는 오월 전(19일까지)’에는 김현돈·노여운·박일구·박태규·설박·윤준형·정희승·최요안·허달용·마니 몬테리비조 등이 참여했다.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민중화, 민주화(18일까지)’전은 녹두서점을 운영했던 김상운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소장품으로 꾸민 ‘광주민중미술전’이라 할만하다. 전시작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미로센터에서 열리는 ‘직시, 역사와 대면하다’ 전에서 만나는 임현채 작가와 ‘또 다시 봄은 오고

제작된, 8명의 작가의 25점을 김 고문이 가려 뽑았다. 송필용의 ‘남편의 땅’, 이준석의 ‘화엄광주’, 힌희원의 ‘별 내리는 신창동’을 비롯해 신창훈·이준석·하성흡·박문중·정희승 서미라 작가의 작품도 걸렸다. 오는 29일부터는 소장전 2부가 열릴 예정이다.

전남여고 앞 ‘예술공간 잡’에서 열리고 있는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5’(24일까지)전은 강 화백이 24년만에 꺼내놓은 ‘오월 작품’이다. 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1980년 오월 이야기를 지난해 목탄화로 그려낸 7점과 ‘장군의 초상’ 등은 강렬한 ‘회화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흥건한 피가 고인 시민군의 헬멧과 먹다 남은 빵조각, 총장로 광주우



오월미술관에 전시된 송필용 ‘학살-금남로에서

체국 앞 우체통의 총탄 흔적, 자택이 있던 신우아파트에서 리어카에 시체를 끌고 가는 두 사람의 모습 등이 모두 작품에 담겼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군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내일부터 두 달간 시민에 공개

분수대 집회·차량시위 등 체험



‘열흘간의 나비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시민군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이 전면 공개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오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옛 전남도청 본관과 전남경찰국 등 6개 동으로 이뤄진 민주평화교류원을 개방한다.

특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에서 열림에 따라 시민들이 이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요일은 오후 7시까지, 금·토요일은 밤 9시까지 연장 개방하고 오월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에도 밤 9시까지 공개한다.

전문 해설사의 해설은 하루 6회(오전 11시·오후 1시·2시·3시·4시·5시, 수요일 오후 6시, 금·토일 저녁 7시·8시) 진행한다.

전시기간 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승·전·결 서사로 그려낸 ‘열흘간의 나비떼’ 콘텐츠도 관람할 수 있다. 옛 전남경찰국 본관엔 1980년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열흘간의 서사 중 기, 승 구조에 해당하는 역사적 콘텐츠가 구현돼 있다.

도청 앞 분수대 집회와 차량시위, 금남로 집단발포에 이르는 상황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옛 전남경찰국 민원실은 계엄군이 퇴각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방광주’ 상황을 ‘환희’라는 주제로 표현했다.

윤이상의 음악 ‘광주여 영원하라’와 함께 당시의 금남로를 걷는 느낌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에선 5월 27일 새벽 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최후 항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민주평화교류원 개방은 지난 2017년 임시개방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로 46만 여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ACC는 옛 전남도청 개방과 함께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전시, 공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